

(Robert Vannoy) , 대선지자, 강의 14

이사야 40장 서곡, 주님의 종 주제

이사야 40장 서곡 소개

시트 에 있는 이사야 40장은 “서곡” 으로, 이 자료를 음악 작곡과 비교하는 MacRae의 제안을 따릅니다 . 40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단위로, 다음 내용과는 다소 다릅니다. 그리고 MacRae는 이것이 후속 장에서 반복되는 여러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음악 작곡의 서곡과 비교된다고 제안했습니다 .

이러한 주제를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후속 장에서 이러한 주제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40장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일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자료만큼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장은 특정한 구원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일반적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즉, 그분은 죄 문제를 다루시고 죄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는 어떤 기쁨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에 관한 기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은 40장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40장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 중 하나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장(章)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 특히 비참함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읽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이 장에서 큰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1-2 예루살렘에 위로가 처음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예루살렘에게 다정하게 말하여 그에게 고하라 그 수고가 끝났고 그 죄값은
치러졌으니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고 전하라
.” 위로는 예루살렘에 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쟁이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즉, 그녀의 힘든 복무, 강제 노동, 전쟁 복무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그가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형벌로 이해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로 인해 두 배를 받았습니다.

“이중”(?) 또는 대체/등가물 그러나 인용문을 보십시오. MacRae의 29

페이지에 흥미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이사야 복음의 40-43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매우 유용한 작은 책. “다소 특이한 해석은 여기에서 ‘두 배’가 ‘두 배의 축복’을 의미하며, 그 문구는 이스라엘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한 해석에는 언어학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이중’이라는 단어에 ‘축복’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려움의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이중’으로 번역되는 여러 단어 중 하나인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너무 많이 생긴 사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때 영어 단어 ‘이중’과 유사한 것으로 적절하게 간주될 수 있다는 인식에 있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담 후세인은 여러 차례 복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와 너무 닮아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에게는 이중이 있기 때문이다. . 그들 각각은 다른 것의 두 배일 뿐이지만 어느 쪽도 동등하거나 다른 것의 두 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동등한”, “상대”, “대체”로 번역하는 것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다고 선언하실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벌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신성한 종만이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MacRae가 “그가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라는 진술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의 구원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더 기본적으로, 중요하게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MacRae의 제안이 확실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절 중간에 있는 “그의 수고가 끝났고 그의 죄값이 치러졌느니라” 라는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죄악이 용서받았느니라.” 글쎄요, 동등 또는 대리자, 이스라엘과 동등한 사람이 그녀를 대신하여 그녀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이 그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즉,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만 제한한다면 그녀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3-5 하나님의 구원

3-5절. 구원의 개념은 더욱 강조됩니다. “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돋우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준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 다시 한 번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으며

길이 곧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 생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고국에서 분리시키는 온갖 어려움과 언덕과 계곡이 제거되어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레 요한 참조 [눅 3:4-6; 마 3:1-3; 막 1:2-3; 요한복음 1:19-23]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네 복음서 모두에서 이 부분이 세레 요한에 대한 언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복음 3장 4-6절을 보십시오. “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한 분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리라. 굽은 길은 곧게 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 ”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그것은 세레 요한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그가 요단 강 부근 각 지방에 두루 다니시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시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

마태복음 3:3. 마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그 때에 세레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더라.

”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장 2, 3 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 ‘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9-23, “이는 요한의 증언이니라.” 23절에 이르기까지, “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니라.”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그는 ‘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답을 주소서. 당신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르되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

그러므로 5절에 이르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는 말씀이 분명히 절정입니다. 성육신 외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40:6-8 “외쳐야 할 메시지”

이제 이사야 40:6-8에 이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 ‘ 부르짖으라’ 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 내가 무엇을 울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이는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확실히 사람들은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였느니라 .’ ” 여기서의 기본 사상은 인간과 땅의 모든 것이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많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은 일시적이고 환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시들고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9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오십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로한다는 개념으로 되돌아갑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도 NIV가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고 말하고 있는 반면, NIV에서는 9절 “좋은 소식을 시온 *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고 말합니다. . 좋은 소식을 예루살렘 *에* 전하는 자여 ,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로하십시오.

이사야 40:10-11 그의 구원의 위대함 10절과 11절은 그의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의 팔로 다스리시느니라. 보라, 그의 상이 그에게 있고 그의 보상이 그에게 따르느니라. 그분은 목자처럼 양 떼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어린양들을 그분의 팔로 모아 그분의 마음에 안고 가십니다. 그분은 어린 아이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강하시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것이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의 팔이 그를 다스리리라.” 그래서 그는 강하다. 그는 자신이 하려고 계획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에 대하여 그분은 목자와 같습니다. “어린 양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그분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들을 온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의 구원의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12 전환 그런 다음 12절에서 다시 짧은 전환을 얻습니다. 여기서 유인물을 제공하고 나머지 장에 대한 오버헤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12절에 “ 누가 손바닥으로 물을 헤아렸으며 자기 손뼉이로 하늘을 헤아렸느냐” 고 했습니다. 누가 바구니에 땅의 티끌을 담았으며 저울로 산을,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 11과 12 사이에서 생각의 급격한 전환을

연습니다. Eleven은 양을 팔에 안고 어린 양을 부드럽게 인도하는 목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장에서 강조된 주님의 온유함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주님을 이방의 신들과 비교하고 그분의 능력, 특히 그분의 창조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적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사상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것은 망명자들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시대, 느밋세 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장 뒤에 나오는 자료에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강조하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 이제 12절부터 31절까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장이 매우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디어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또 다른 아이디어로, 다시 첫 번째 아이디어로 전환함으로써 그 구조가 모호해질 수 있지만(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은 무계획적이지 않습니다. 구조와 부품 간의 관계를 발견하려면 상당한 양의 연구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음악 구성과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작가가 그 힘과 인상을 주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사물을 구성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음악을 듣고 음악의 진행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의식적으로 깨닫지 않고도 그것을 읽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앉아서 분석해 보면 그 이면에는 매우 세심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우주를 창조하였는가? 이제 그 유인물을 보면 12절에 “누가 우주를 창조하였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에는 다섯 가지 측면이 있으며 모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신입니다. “ 누가 손바닥으로 물을 헤아렸으며 자기 손의 너비로 하늘을 헤아렸느냐? 누가 바구니에 땅의 티끌을 담았으며 저울로 산을,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 거기에는 다섯 개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우주는 누가 창조했는가? 모두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첫 번째 스트로페입니다.

이사야 40:13-14 창조 시 하나님의 조력자는 누구였는가? 두 번째 질문은 둘 다 자연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4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하나님의 창조 시 조력자는 누구였습니까?”입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에 대한 다섯 가지 측면을 얻게 됩니다. 거기 구조가 있는 걸 보세요. 5와 5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두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 누가 여호와와 마음을 깨닫고 여호와를 그의 모사로 삼았느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의논하여 그에게 깨우쳐 주셨으며 누가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쳤느냐? 그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 이번에도 다섯 개의 구문으로 나뉩니다. 모두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 40:15-17 열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 그 다음 첫 번째 절정인
세 번째 연으로 이동합니다(15-17절). “열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라.
” 당신은 전환을 합니다. 처음 두 연은 자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우주를 창조하였는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조력자는 누구였습니까?” 세 번째
연은 역사로 이동하여 15절부터 17 절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
그들은 저울 위의 먼지로 간주됩니다. 그는 마치 미세먼지인 것처럼 섬들의
무게를 달아본다. 레바논은 제단의 불에 넉넉하지 못하며 그 짐승은 번제에도
부족하니라 그 앞에는 모든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라. 그분은
그것들을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십니다 .” 그러므로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라. 바벨론은 강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나라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저울 위 의

작은 먼지 로 간주됩니다 . 그러한 종류의 이미지는 국가의 힘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사야 40:18-20 우상 숭배의 주제와 우상 숭배의 무익함

4연(18-20절)으로 가면 다시금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의 무익함이라는 주제로 옮겨갑니다. 우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40장 18-20절, “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를 어떤 이미지와 비교하시겠습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금세공인이 금을 입힌 다음 은사슬을 만듭니다. 너무 가난하여 그러한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선택합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는 우상을 세우기 위해 숙련된 장인을 찾습니다. ” “당신은 누구와 비교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문구가 소개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와 어떤 모습을 비교하시겠습니까 ?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이 나무토막에 비유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섹션의 생각은 비교를 통해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주인이시다. 그는 역사의 주인인데 당신은 그것을 나무막대기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유하시겠습니까?

이사야 40:21-24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의 주인이시다

다섯 번째 연(21-24절)에 도달하면 두 번째 절정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자연과 역사가 함께합니다. 40장 21~24절에 “ 너희가 모르느냐? 듣지 못하셨나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이 창조된 이후로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의 보좌에 좌정하시니 땅의 백성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휘장 같이 펴시며 거할 천막 같이 치시며 방백들을 멸하시며 이 세상 통치자들을 멸하시느니라. 심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땅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불으시면 말라 회오리바람에 겨 같이 쓸려가느니라 .” 이제 이 두 번째 클라이맥스에서는 여기서 “물랐나요?” 라는 질문으로 다시 소개했습니다. 듣지 못하셨나요? 이 일이 처음부터 네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자연 과 역사 의 주인이시며 , 문학적 구조에는 네 가지의 “가지지 못한 것” 이 있습니다. 21절은 히브리어 표현 *ha'l'o* ? “당신은 물랐나요? 듣지 못하셨나요?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았나요? 이해하지 못하셨나요?” 네 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ha'l'o* . 그런 다음 22-23절에서 세 개의 이중 이중 행을 사용합니다. 세 개의 참여형 이중선: “앉으신 이” , 22절, “ 그는 땅 위의 보좌에 좌정하시니 땅의 백성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휘장 같이 펴시며 거할 천막 같이 치시며 방백들을 멸하시며 이 세상 통치자들을 멸하시느니라 .” 그래서 앉고, 펼치고, 가져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거의” 또는 “어려움”으로 소개된 세 개의

동사가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파종되지 않을 것이며, 그 줄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24절에서 “거의” 또는 “어렵게” 로 시작되는 세 개의 동사. 그리고 24b절에서는 날카로운 *we'gam* 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도 그러하리라” 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불어서 말릴 것이요 회리 바람이 그들을 초개 같아서 쓸어 버리리라.”

이제 그 결론은 두 번째 절정을 제공하며, 이는 첫 번째 절정을 더욱 확실하게 만듭니다. 첫째,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그들에게 불을 붙일 것입니다. 그들은 시들고 지푸라기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삼중주(즉, 부분적인 이중선)와 처음 세 절 사이의 비교 또는 대응을 주목하십시오. 22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22절을 보면 땅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거민은 메뚜기와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며, 거할 천막처럼 펴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누가 우주를 창조하였는가?” 라는 첫 번째 구절과 비교됩니다. 반면에 23절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이는 세 번째 절인 “열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라” 와 비교됩니다. “앉는 자” 와 “눕히는 자” 라는 분사가 처음 두 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주들을 폐하는 자” -그것이 역사이며, 이중 참여 행 중 세 번째에서 볼 수 있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역과 비교됩니다. 자연에서 역사로 이동하는 구조의 반복을 얻게 됩니다. 두 곳 모두에서 자연이 두 개, 역사가 하나입니다.

이사야 40:25-27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주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 6절로 가십시오. 40장 25-27절, “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아니면 나와 동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별빛 군대를 하나씩 불러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분. 그의 능력이 크시고 힘이 강하시므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네가 어찌하여 야곱아 하며 이스라엘아 불평하여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내 송사를 무시하시느니라’ ” ?

25-27절, 여호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당신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을 소개하면서 6절을 소개합니다. “당신은 나를 누구와 비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25-27절의 실제 초점은 27절에 있습니다. 주님을 누구와 비교할 것입니까? 이제 그의 창의력을 살펴보세요. 27절에서 어떻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참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연에 대한 그분의 통치, 역사에 대한 그분의 통치에 집중할 때, 그분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어떻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

역사는 고난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당신은 몰랐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소개됩니다. 두 번째 클라이막스처럼요. “당신은 몰랐나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이해를 탐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기절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 없는 자에게 그는 힘을 더하시느니라.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앞 절인 27 절을 보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자기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왜 “나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느니라” 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0:28-31 40 장 28-31절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내 생각 에 그 대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혹을 받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 주어집니다 .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면, 그분은 자신이 선택하신 일을 하기에는 너무 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모르시나요? 듣지 못하셨나요? 여호와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지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시니라 그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명철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느니라 .” 우리는 그의 이해력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능력은 그분이 하려는 모든 일을 성취하기에 충분합니다 . 그분은 결코 기절하지 않으시며, 결코 지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면 피곤해지기 쉬운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면 그들이 새 힘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장은 놀라운 장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이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 조직의 복잡성과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다이어그램을 읽고 개요를 작성하려고 해도 개요를 잡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매우 신중한 구조가 있습니다. 사물의 반복, 분석하지 않았더라도 장을 읽을 때 강하게 충격을 주는 구조적 구성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 중 하나인 이사야 40장이라는 것을 아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 주제 - 네 편의 종 시편 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종 주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5~6가지 테마를 쫓아요. 이사야 41장부터 66장까지 쫓아 훑어보며 그 모든 주제가 전개되는 방식을 추적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고려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종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통해 작업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메시아적 관점에서 볼 때 확실히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이제 특정 구절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종종 그들이 “네 종의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을 분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Whybray 에서 소위 “종의 시편”이라 불리는 네 편의 시편에 대한 주석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귀하가 인용한 29 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분리된 네 가지는 42:1-7이다. 하인의 구절을 이 네 구절로 제한하는 것은 실제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확실히 네 가지 주요 구절입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학자들은 종종 이 네 가지를 분리하여 각기 다른 기원과 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원본 텍스트에 대한 부차적인 것이며 원본 텍스트에 삽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급했듯이 그 주제는 단지 네 구절에만 국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종 주제를 살펴보면서 이사야서의 이 부분에서 종에 대한 모든 언급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종의 주제가 포로들의 더 큰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연관성은 무엇이며, 물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야 41장 8절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니라 첫 번째는 이사야 41장 8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데리고 땅 끝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노라. 나는 ‘당신은 나의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나는 지금은 더 이상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8절과 9절에서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종” 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종종 단순히 경건한 사람들에게 사용됩니다. 때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모세에게도 사용되었고, 여호수아에게도 사용되었으며, 엘리야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사용된 것처럼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주제를 추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여기 41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중요성이 커지고 53장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앞으로 살펴 보겠지만 처음에는 종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8절이 매우 명백해 보이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복잡해집니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종이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종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는 이유를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13절로 내려가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벌레 같은 야곱아, 작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우리라. 네 구원자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보라, 내가 너를 새롭고

날카롭고 이가 많은 타작 기계로 만들 것이다.’ ”

본문을 읽어보면 그 종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버림받지 아니하리라. 종의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나 종의 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벌레 같은 야곱아, 작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우리라 네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하노라. ’ 보라, 내가 너를 타작 썰매로 만들 것이다 .’ ” 따라서 41장에서 그 종이 이스라엘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 본문의 범위, 이 주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19절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2. 이사야 42:1-7 종이 할 일 두 번째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주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 42:1-7: “ 보라, 내가 불드는 나의 종이요, 내가 택한 자라.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신실하심으로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때까지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의 법에 섬들이 소망을 두리라’ 하나님 여호와

곧 하늘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

여기에서 창조적인 힘을 주제로 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가 땅과 거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베푸시며 땅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나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느니라. 나는 당신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포로를 옥에서 풀어주며 흑암에 앉은 자를 옥에서 놓아 주리라’ ”

그래서 이사야 42장 1-7절에서 당신은 다시 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니라.” 종이 할 일에 대한 그림이 제시됩니다. 종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니라” 고 말한 것처럼 그 종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종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종이 성취할 일에 대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흥미 롭군; 마태복음 12:18-21을 보면 이 구절이 예수님께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 이는 나의 택한 종 곧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고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로다. 그의 이름에 민족들이 희망을 둘 것이다. ” 이것은 예수님에게 명확하게

적용되는 맥락입니다. 그러나 42장 한 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택하신 종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니 그가 이방 곧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사람의 행실이 품위 있고 온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외치거나 들거나 그의 목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폭력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42장 4절에 “그가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까지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리니 지경들이 그의 법을 앙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해안”은 먼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5절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종의 일에 대한 설명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질문 발생 이제 이 시점에서 질문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되는 질문은 이스라엘이 여기에 설명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속박과 비참함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이 어떻게 여기서 주님의 종이 행할 것이라고 말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나는 당신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포로를 옥에서 풀어주며 흑암에 앉은 자를 구덩이에서 놓아 주리라 ”

이사야 42:19-24 이스라엘 자신이 포로로 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신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단지 읽는 동안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나 그것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장의 뒷부분에서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1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 내 종이 아니고 내가 보낸 사자 외에 귀머거리가 누구냐? 나에게 맡겨진 사람처럼 눈먼 사람, 여호와의 종처럼 눈먼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많은 것을 보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시다. 귀는 열려 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의를 인하여 그의 율법을 크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백성은 약탈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며 다 구덩이에 갇히거나 옥에 갇힌 백성이니라 그들은 약탈당했지만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탈당했고,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그래서 19절에는 바로 그 질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눈멀고 귀먹은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21절은 종의 일이 이루어지리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의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분은 율법을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다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탈당하고 약탈당하고 굴에 갇히고 옥에 갇힌 백성인데 어떻게 종의 일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4절에는 “누가 야곱을 탈취물로 주셨으며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넘겨주셨는가?” 라는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여호와께서 아니시냐?” 24절은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약탈당하고 약탈당합니까? 이스라엘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눈이 멀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 여러분 중 누가 이 말을 듣거나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까? 누가 야곱을 노략거리가 되도록 넘겨주셨으며 이스라엘을 노략꾼들에게 넘겨주셨는가? 우리가 그에게 범죄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냐? 그들은 그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에게 그의

타오르는 분노와 전쟁의 폭력을 쏟아부으셨습니다. ”

그러므로 42장에서 보면 땅 끝까지, 이방인과 열방에게 빛과 구원을 가져올 자로 제시된 종이 있습니다. 포로와 감옥과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자신이 죄로 인해 속박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더 자세히 추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네요. 이스라엘은 종이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신이 죄가 있고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면서 이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은 끝났습니다.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필사: Dana Engle

초기 편집: Carly Geiman

대략 편집: Ted Hildebrandt

최종 편집: Dr. Perry Phillips

재내레이션: Dr. Perry Phillips